

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영교 (yoonyk@kdb.co.kr)

- ◆ 미국 기업 CEO들은 경영환경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, 팬데믹 발생 이후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했던 대표 IT 기업들이 최근 대량 해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(근로자) 우위 고용 환경에 변화 조짐 발생
- ◆ 주택가격 하락이 가시화됨에 따라 건설 부문 고용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, 고용 감소와 임금 상승률의 추세적 하락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세 지속 전망

□ '22년 들어 미국 기업 경영자의 향후 사업환경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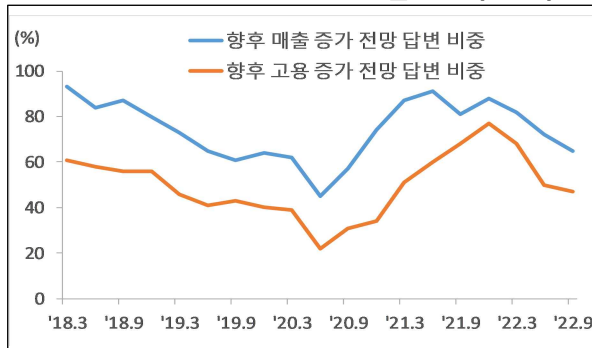
- 미국 CEO 대상 조사 결과* 향후 6개월 간 매출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줄어든 반면,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증가
 - * Business Roundtable(미국 CEO 연합회)이 매분기 소속 CEO를 대상으로 향후 경영 환경(향후 6개월 매출, 투자, 고용 전망)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발표하며, '22.3분기는 8.12일~9.7일에 진행 후 9.14일에 발표하였으며 170명의 CEO가 참여
 - '21.2분기 91%에 달하던 향후 6개월 매출 증가 전망 비중은 '22.3분기 65%로 하락, 반대로 매출 감소 전망 비중은 1%에서 16%로 상승
 - 같은 기간 향후 6개월 고용 증가 전망 비중은 60%에서 47%로 하락한 반면, 감소 전망 비중은 7%에서 19%로 상승
- 매출 증가 전망*이 '21.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반면, 고용 증가 전망**은 '21.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해 6개월의 시차 발생
 - 고용시장은 수요(생산)에 후행하며, 기준금리 인상('22.3월 시작)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
 - * 매출 증가 전망(%): 91('21.2Q) → 81(3Q) → 88(4Q) → 82('22.1Q) → 72('2Q) → 65(3Q)
 - ** 고용 증가 전망(%): 60('21.2Q) → 68(3Q) → 77(4Q) → 68('22.1Q) → 50('2Q) → 47(3Q)

□ 팬데믹 이후 빠른 고용시장 회복을 견인한 대표 IT 기업들을 필두로 미국 고용 시장 약화 조짐 확인

- 미국의 대표 IT 기업(Twitter+FAANG*) 6개사는 '10년~'21년 중 총 201만명을 신규 고용, 해당 기간 중 미국 전체 신규 고용자 수(1,796만명)의 11.2%를 차지**
 - * Meta(Facebook)社, Apple社, Amazon社, Netflix社, Alphabet(Google)社를 지칭하는 용어로 2010년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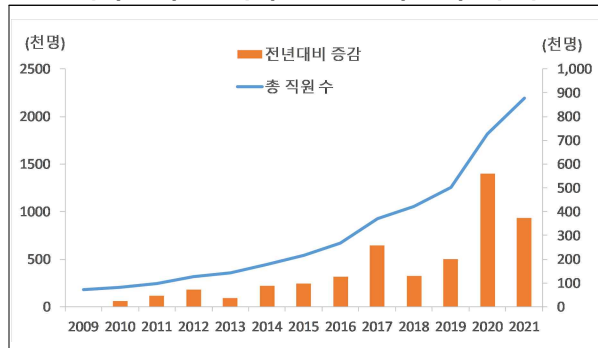
- 팬데믹 기간인 '20년 미국 전체 고용자 수가 89만명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위 기업들은 비대면산업 부상으로 오히려 56만명 신규 채용
- 금리인상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고용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리오프닝으로 비대면사업 부상 효과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 IT 기업들의 이익 감소폭이 여타 기업에 비해 클 것으로 우려
 - '19년~'21년 위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82% 증가해 S&P500 전체 증가율(27%)을 크게 상회, 그에 따라 시가총액 비중도 상승*
 - * 위 6개 기업 시가총액이 S&P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19년 15%에서 '21년 22%로 증가
 - '22년 11월 현재 시가총액 비중은 17%까지 하락, 위 기업의 '22년 당기순이익이 여타 기업에 비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* ⇨ 비용 감축 압박 심화
 - * '22년 연간 이익 확정치는 '23.1분기에 확인 가능
 - 트위터(Twitter)社は 전체 직원의 절반인 3,700명을 해고한데 이어 메타(이전 Facebook)社와 아마존社도 각각 1만여명 감원 결정

Business Roundtable CEO 설문조사 결과



자료 : Refinitiv

미국 6개 IT 대기업 합산 직원 수 추이



자료 : Refinitiv

□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던 임금 상승률은 하락 추세 지속 전망

- 금리인상에 의한 부동산 시장 조정이 미국 고용시장을 약화시키는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'20.4월~'22.9월 중 미국 건설 부문 고용은 전체 제조업 부문 고용의 45% 차지*
 - * 위 기간 중 건설 부문 고용은 120.5만명, 건설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고용은 272.3만명 증가
 -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'22년 들어 신규주택착공*이 감소하기 시작,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*하면서 건설 부문 채용은 감소 전망
 - * 미국 주택착공(천건): 1,805('22.4월) → 1,562(5월) → 1,575(6월) → 1,377(7월) → 1,566(8월) → 1,439(9월)
 - * 미국 주택가격지수 상승률(% mom): 1.6('21.4월) → 1.3(5월) → 0.2(6월) → △0.5(7월) → △0.9(8월)

- 팬데믹 이후 신규 고용 수요가 컸던 산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, 혹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'22.6월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
- 미국의 '22.10월 임금상승률(5.5%)*은 팬데믹 이전(2.2%, '11년~'19년 평균)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'22.3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
 - * 미국 임금상승률(% , yoy): 6.7('22.3월) → 6.4(5월) → 6.2(7월) → 6.0(8월) → 5.8(9월) → 5.5(10월)
- 파월 연준 의장은 '22.11월 FOMC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은 물가상승에 주요인이 아니라고 언급*, 향후 추가적인 물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**
 - * I don't think wages are the principal story of why prices are going up.('22.11월 FOMC 기자회견 파월 의장 발언 中)
 - **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(% , yoy): 9.1('22.6월) → 8.5(7월) → 8.3(8월) → 8.2(9월) → 7.7(10월)